

고통의 시간은 인생 허비가 아니다.

성경말씀: 욥10:1-22

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욥과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자(1:8; 2:3) 사탄이 욥을 2번 대적함. 재물, 자식, 병, 아내, 그런데 욥은 두 번 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음(1:21-22; 2:10). 이로써 이미 사탄의 도전은 끝이 남.

3장부터는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록함

1. 욥: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운 자는 없다(9:2).

2. 그의 친구들: 또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위선자가 될 수 있다(8:13). 위선자는 자기가 위선자임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자들: 위선자, 특히 종교적인 위선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4-7장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 8-11장은 소발과 욥의 논쟁
빌닷의 논쟁(8장)

빌닷은 세 가지 요점으로 욥을 공격하고 욥도 이에 항변한다.

지금 욥의 상태: 영과 육이 만신창이, 죽음 일보 직전, 소발이 쏟아붓는 위로의 말(2), 도움이 안 됨 8장에서 그는 자기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가지고 변론 시작(4:17).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려고 한다
(3).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거의 다 맞는 말, 무엇이 문제인가?

1. 하나님의 성품(8:1-7): 하나님은 100%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다. 잘못을 범할 수 없다.

욥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잘못하는 듯한 발언을 함. 그래서 화가 치솟음. 여기까지는 OK!

문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빌닷도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만 강조함: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필요: 49%:51%

긍휼이 없으면 심한 말을 한다(4);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혹시 우리는 이렇지 않느냐?

대다수 종교인들의 문제점: 예수님의 말씀(마9:10-13), 빌닷은 구약의 율법과 비슷함

5-7절은 변영 신학의 근거: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변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특히 7절은 크게 오용되는 말씀: 격려의 말씀, 그런데 지금 문맥에서는 욥을 비난하는 말

나중에 이상하게도 욥은 빌닷의 말대로 변창하게 됨(42:12-17). 하나님이 위선자의 말을 뒤집음

2. 과거의 경험(8-10): 역사가 무어라고 말하느냐? 옛사람들이 무어라 말하느냐?

위인전, 사마천의 사기 등을 읽는다. 교훈을 배우려고

"과거를 잊은 백성은 패망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과거를 자꾸 기억하면 소용없다. 에너지 낭비

배의 키와 닳: 과거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키가 되어야지 미래를 붙드는 닳이 되면 안 된다.

일제 강점기 36년 슬픈 역사, 고통의 역사, 힘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국론 분열의 결과

그러나 이제는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함께 상생하며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처럼, 반일 그만해야 한다.

8절의 이전 시대 사람들은 누구인가? 욥기 약 4000년 전

욥 이전 시대 사람들은 노아 시대 대홍수를 겪은 뒤 남은 사람들, 생생하게 그 당시 기억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삶, 셈은 500년 정도를 더 삶, 욥과 동시대를 삶

빌닷의 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너와 네 가족도 죄로 인해 심판하신다.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욥의 죄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창6:5, 11-12)

욥의 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죄

또 다시 받는 교훈: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정당하지 않다.

사과는 사과와 오렌지는 오렌지와 비교해야 정당하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3. 자연계의 인과응보 법칙(11-22), a. 11-13절, 골풀, 파피루스 식물 물이 없으면 시든다.

욥도 마찬가지로, 너는 위선자다(13), b. 거미줄에 기댈 수 있느냐?(14-15), 네 확신은 거미줄과

같다. c. 정원에서 식물을 뽑아내면 곧 시들어 죽는다(16-22). 욥도 뿌리째 뽑힌 식물과 같다.

그 결과 22절 결과가 임한다.

욥의 변론(9-10):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음

9-10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려 함

1. 과연 누가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겠느냐(9:1-3)?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의가 아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를 증명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주로 이야기한다.

1. 사람은 하나님의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9:3).

2.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세상의 천재지변을 모두 일으키신다(5-6).

해와 달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신다(수10:12-13).

3.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다(8-10). 과학자들 우주가 팽창함을 이제 겨우 알아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주 팽창을 성경에 이야기하신다(9:9). 사40:22

4. 이렇게 엄청난 위력의 하나님은 동시에 안 보이는 분이시다(11).

5. 그분의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12).

6.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협력자들(마귀들, 천사들 사람들)도 고개를 굽힌다(13-14).

2.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법정에 데려가는 것을 상상함(15)

1.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법정에서 변론하고 주님이 혹시 응답하신다 해도 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16). 혹시 내가 잘못 변호하면 오히려 고통만 더 늘어날 것이다(18). 내가 비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질 것이다(20).

2. 그의 친구들 주장: 하나님은 오직 죄인만 멸하시고 의인에게는 항상 복을 주신다. 욥의 말: 아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를 죽이고 어떤 때는 의인도 죽인다(22). 땅에는 사악한 재판관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신다(24). 이런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3.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27-28).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4.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인이 있으면 좋겠다(33). 그런데 그런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욥의 한탄: 왜 내가 태어났는가?(10장), 한탄과 헛소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8-12). 특별히 12절. 그렇게 수고하시고는 왜 나를 멸하십니까?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3). 왜 저를 사냥하십니까?(18). 그래서 제가 이토록 어렵습니다(1).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15). 차라리 유산되어 태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18). 제게는 구출자가 필요합니다(10:7).

4. 욥의 말 요약: “제 인생은 헛되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욥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 존전에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지 알 수 없다.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도 고통당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결코 인생 허비가 아니다.

모세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의분에 차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그 뒤 인생이 역전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다.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았다.

괴로운 시절: 그러나 그 시기가 있어서 그는 겸손하게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다. 그 뒤 인생이 역전되어 이집트 탈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

5. 욥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신다. 심지어 고통의 시간에도

이때에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의 권고(약5:11): 우리 주님은 동정심이 많은 분, 일으켜 주신다.

자신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도 세 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우리도 일어나야 한다.

6. 욥이 구하는 중재인, 구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인간 세상에는 없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담당 하나님의 공의 만족, 사랑을 통해 사람의 구원 완성,

시85:9-11, 이것이 십자가 사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구원자

7.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므로 받는 고난은 인생 허비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성장의 밑거름